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정인혁 타대오

(? - 1801)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약국을 운영하던 정인혁은 1790년 무렵 최필제 베드로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이후 형제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집안의 제사도 폐지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 때, 그는 친형제들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배교하는 중에도 홀로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래서 관리들은 그를 회유하고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그의 맏형은 '우리 집안에서는 누구도 천주교를 신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고, 형조에서는 그 말을 믿어 정인혁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만류에도 오히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교리를 연구하였으며,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회원이 되어 신앙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정인혁은 또다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교리를 가르쳐준 최필제 베드로와 함께 1801년 5월 14일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사형 선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매월 7일 동료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다 미사를 봉헌하고 천주교 서적을 외웠으며, 여러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온 세상을 미혹시켰다.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27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에스 4,17②-③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하바 1,2-3; 2,2-4

화답송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 7ㄹ과 8ㄴ)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2티모 1,6-8.13-14

복음 환호송 1베드 1,2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루카 17,5-10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매일 오전 8시 〈가정을 위한 기도〉, 저녁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모경〉을 바칩시다. ✚

지도자의 모범을 세운 모세, 느보산에서 잠들다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비

창세 37—50장에는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가게 된 사연이 소개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다른 아들들의 질투, 열일곱이나 먹은 요셉의 고자질(창세 37,2)과 철없는 꿈 자랑 탓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지만, 이 일로 야곱 집안은 이집트로 피신해 가나안의 기근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한 파라오가 이집트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고 위협을 느껴 강제 노역으로 옭아매고,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죽였습니다(탈출 1장). 이에 이스라엘이 신음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십니다(2,24). 이는 당신께서 맺으신 계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예언자로 삼아 파견하셨습니다(3,1-12).

사실 성경에서 예언자라 일컬어진 최초 인물은 아브라함이지만(창세 20,7), 정식으로 소명을 받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한 이는 모세입니다. 주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부르며 당신을 드러내신 뒤(탈출 3,1)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가나안의 입구에 해당하는 모압 벌판까지 인도하며, 노예 집단에 지나지 않던 이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대목은 예전에도 앞으로도 모세만 한 이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전합니다(34,10).

이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 민수 20장에 나오는 마싸와 므리바 사건 때문인데요, 이 일에서 모세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만 그의 죄는 흔히,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 "명령"하여 백성을 위해 물을 내어주라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낸 데 있다고 풀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지 않을 거면 하느님께서 왜 지팡이를 집어 들게 하셨느냐는 점입니다(8절). 오히려 모세의 죄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10절)라고 한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을 내게 하는 힘은 하느님께 있는데, 모세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 힘이 마치 자신과 아론에게 있는 양 포장한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해서도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가나안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모압의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신명 34장).

모세는 주님의 대변인이자 백성의 지도자로서 큰일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들의 전형일 뿐 아니라 후대의 지도자들에게도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영광과 명예만 원할 뿐 자신이 맡은 책임에는 불성실한 위정자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가나안에 들지 못하지만 주님께 끝까지 복종했던 모세가 잠든 느보산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루카 17,7)이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김명숙 소피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박사, 광주가톨릭대학교 구약학 교수, 전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서 「에제키엘서」 「예레미야서 1-25장」 「예레미야서 26-52장」 「구세사 산책: 에덴에서 약속의 땅까지」

열두 사도를 세우심

「교회헌장」 제19항

「교회헌장」 제19항은 앞선 항에서 언급한 봉사 직무의 의미와 교계 제도의 설립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복음서에서 찾습니다. 마르 3,13-14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신 후,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태 10,1-2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열두 사도"라고 칭합니다. 루카 6,12-13 역시 예수님께서 산으로 나가시어 밤새워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열둘"을 뽑으시고 "사도"라 부르셨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공관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둘(열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는데, 이 "열둘"을 뽑아 세운 목적은 그들을 파견하여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이 "열둘"을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공의회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확고한 "단체"의 형태로 세우시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가르칩니다(요한 21,15-17 참조).

예수님께서는 확고한 집단인 이 사도들을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고, 이어서 모든 민족에게 파견하십니다. 사도들의 파견 대상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복음은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로마 1,16을 참조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 모든 민족을 대립의 개념으로 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력을 나누어 받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스립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교회를 전파하고 주님의 인도로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교회를 사목합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사명 수행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사도 1,8)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둘을 부르시어 사도들로 세우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셨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사도들을 부르심〉, 1481-1482년, 프레스코화, 시스티나 경당

공의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둘을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이르는 과정을 성경 내용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활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보편 교회를 모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도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들의 으뜸인 베드로 위에 지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장

다시 시작하는 신앙 새내기 생활

김은아 엘리사벳 / 별내 성당

출근 전 동네 산책 중, 돌담길에 핀 작고 작은 들꽃을 발견했다. 문득 반 아이들이 떠올랐다. '작고 귀한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그날 아침, 다 모인 인사 시간에 들꽃을 본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이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걸 보고 너희 생각이 났다고. 선생님이 앞으론 좀 더 사랑을 담아서 지도하겠다고 사과하듯 말했다.

점심을 먹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한 아이가 작은 들꽃을 하나 뽑아 말도 없이 건넨다. 실낱처럼 가느다란, 아주 작은 것이었다.
'아침에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고 선물로 준걸까?'

그러나 감동을 전하기도 전에 "꽃을 꺾으면 안 되는데…."하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왔다.
"다행히 뿌리째 뽑아 왔구나. 화분에 심어 키울게. 고마워."라고 답했다.
반에서 생일이 가장 늦고 말도, 행동도, 가장 느린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모든 걸 느낀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든 걸 느낀다는 걸 내가 느낀다.
가끔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 어른이고 교사인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한다. 나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신실하게 성당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집안 종교로 어릴 때 세례를 받았지만, 스스로 발길을 성당으로 향한 건 몇 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하느님을 왜 믿어야 해?' '왜 성당을 가면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쳐야 해?' '이게 살면서 무슨 도움을 줘?' 의문투성이에 불만투성이였다.

지금은 일곱 가족 중, 내가 제일 열심히 다닌다. 아빠의 설교 말씀에 늘 귀를 닫고 살았는데, 성당 미사를 다녀오면 70대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린다.
"나 미사드리고 왔다~ 오늘은 우리 신부님이 성심당 빵 주셨다~ 우리 신부님 멋있지?"
"이야, 경기도 성당은 선물도 다르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매일 기도를 한다. '오늘도 제 안의 평화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다 문득 '어! 이 정도 기도는 내가 나에게 이루어 줄 수도 있겠는데?'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는 것이,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순간이다.
기대가 된다, 앞으로의 '다시 시작하는 신앙 새내기 생활'이.

교구 소식

월간성서 〈10월호〉

일시 10/2(목), 10/9(목), 10/16(목) [총 3회 업로드]

주제 말씀의 길

강사 오경택 안셀모 신부 (춘천교구,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성서신학)

시청 ▶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10(금) 14: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내용 성모찬가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 미사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2(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중등부,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0/19(주일) 10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내용 체육대회 (우천시 강의 및 교리)

교구 청년 10월 프로그램 –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하는 HOPE STAY 피정

2025년 '희망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희년, 바오로딸 수녀님과 함께 기도하는 Hope Stay는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10/14(화) 20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10/24(금) 20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소년 및 청년 (15~45세)

신청 청소년사목국 등록시스템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채널

신청 ▶

[전시] 안선영 회화 개인전, 삶의 정원사, 그대에게 – 자연의 따스한 속

일시 10/11(토)~24(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의정부교구 제151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10/24(금)~26(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신청 ▶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10/26(주일)은 백석농아선교회 캠프가 있어 수어미사가 없습니다.

DIOCESE OF UIJEONGBU

전신자 성경 읽기 10/5(주일)~11(토) : 요한 17,20-18,11 10/27(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미사 · 피정 ▶▶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일시: 10/12(주일) 10시~16시 (9시 미사 참석가능)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주제: 부활의 언덕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내용: 영광의 신비 1~2단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3(화) 16시 ~ 25(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30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0/11(토) 10시, 풍동 성당
문의: 02-3673-2525

프란치스칸 효소 단식 피정
일시: 매달 셋째 금~주일 [2박3일] / 25만원
장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양평수도원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문의: 010-8858-781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자도포함): 11/15(토)~18(화)
자연순례: 11/10(월)~13(목), 11/27(목)~29(토)
12/5(금)~7(주일), 12/13(토)~15(월)
체나콜로대피정 포함: 10/18(토)~20(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0/11(토)~12(주일), 12/20(토)~21(주일)
3박 4일: 10/30(목)~11/2(주일), 11/27(목)~30(주일)
8박 9일: 10/17(금)~25(토), 11/5(수)~13(목)
40일: 10/14(화)~11/22(토), 12/17(수)~1/25(주일)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1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010-2127-0032

구산 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난 주님께 무엇을 봉헌했나
일시: 10/11(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 (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 성가: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0/24(금)~11/1(토), 11/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위령성월피정: 11/2(주일)~4(화)
제주순례: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12/6(토)~8(월), 12/12(금)~14(주일)
추자도순례: 11/22(토)~25(화)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몰·일출):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9(금)~11(주일),
1/15(목)~18(주일), 1/23(금)~25(주일),
1/30(금)~2/1(주일), 2/6(금)~8(주일),
2/22(주일)~24(화), 2/27(금)~3/1(주일)
장소: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교회사 안에서 영성
1차: 12/17(수) 15시 ~ 18(목) 13시
2차: 2026년 1/7(수) 15시 ~ 8(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12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무료 치유 피정 – 매월 셋째(수)
일시: 10/15(수) 11시~16시,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내용: 말씀치유 찬양, 미사, 안수 / 점심무료제공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해외사목담당)
문의: 010-4444-1264 (연신내역 7번 출구)

10월 토요낮 치유 대피정
일시: 10/11(토) 12시~17:30 (미사, 안수)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점심무료)
강사: 한연흠 다니엘 신부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0/17(금)~22(월), 11/14(금)~17(월),
12/19(금)~22(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피정 가능)

파티마성모님 발현 108주년 기념 및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10/13(월) 10시~15시
장소: 솔뫼 성지
문의: 010-6303-8515

교육 · 모집 ▶▶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장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4길 14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일시: 10/15~11/12, 매주(수) 14시~16시 [5주간]
장소: 명동 영성센터 B201호 / 회비: 5만원
10/15 김현덕 신부, 10/22 장긍선 신부,
10/29 하형민 신부, 11/5 최강 신부,
11/12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 강의, 지도사제 파견 미사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경통독 & 길잡이 그림틀
강의: 매주(월) 창세기 / 매주(수) 여호수아기
시간: 10시~17시 (파견미사)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성소 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로	명동 가톨릭회관 209호 (서울 수녀원)	010-9353-1773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사랑의 씨튼 수녀회	10/18(토) 14시~17시	카라의 뜰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접수: 10/27(월)~11/21(금) 17시까지
제1과정 (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 (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l.catholic.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10/27(월)~11/9(주일)
면접: 11/21(금) ※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2026년 「간 김에 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순례(프랑스, 독일, 이태리)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문의: 010-5577-3605
※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재무회계, 인사기획&성과관리, 영업, 물류지원
서류: 입사지원서 (본사양식)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문의: 02-6365-1829
※ 홈페이지 catholicbooks.kr-채용정보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업무: 전처리, 조리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 (내선 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9(월)~10/20(월)
전형: 10/25(토) / 문의: 02-705-8668~9

안내 · 기타 ▶▶

제3회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음악회
일시: 10/29(수) 19:30
장소: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예매: 티켓링크에서 10/13(월) 예매 오픈 (무료)
후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02-2164-4466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1/21(수)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14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2(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 여성심리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8(월)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15(목) 베트남, 마카오 성지 (6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12(수) 이탈리아 (11일, 560만원, 대한항공)
1/10(토) 남인도 성지순례 (7일, 350만원)
1/16(금) 상해 성지순례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23(월) 폴란드, 체코 순례 (9일, 3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12(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1/27(화) 마카오 김대건 신부님 발자취 (4일, 160만원)
2/14(토) 나가사키 (4일 169만원)-구정연휴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신/간/소/개

송원섭 | 204면 | 15,000원
문의 | 070-8821-3773 인생산책

고통받던 청소년들의 삶의 복구소

송원섭 신부와 별바라기 이야기

"별을 바라보며 항해하듯"

〈송원섭 신부와 별바라기 이야기〉는 저자가 자립청소년들과 함께 걸어온 '동행의 기록'이자, 이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저자가 자립 청소년들의 삶을 단순히 지켜보거나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좌절을 끌어안으며 다시 일어서는 순간까지 함께한 여정을 담고 있다.

묵주 기도 성월과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10월은 묵주 기도 성월이며 10월 7일은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가톨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월과 기념일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비오 5세 교황(1566~1572년 재위)은 1569년 9월 17일 「로마 교황들은 주로」라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교황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신심 깊은 기도"(1항)인 묵주 기도를 바치면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며, 이단의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2항)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황은 묵주 기도를 정립한 도미니코 수도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칙서 발표 2년 뒤, 묵주기도를 통해 이교 세력을 막고 믿음의 힘을 확인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방 그리스도교의 분열을 틈타 이슬람교 오스만 제국이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마침내 1571년 10월 7일, 그리스 서부 레판토 해안에서 그리스도교 연합군과 오스만 제국의 해군이 맞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의 열세로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내몰린 유럽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황의 명에 따라 한마음으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5시간 만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듬해 3월, 교황은 칙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통해 이 승리가 묵주 기도에 의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10월 7일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임자인 그레고리오 13세 교황(1572~1585년 재위)은 1573년 칙서 「사도좌 권고」를 발표하여 그날을 '거룩한 묵주 기도 축일'이란 이름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에 지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13년 성 비오 10세 교황(1903~1914년 재위)은 다시 날짜를 10월 7일로 되돌렸고, 1960년 성 요한 23세 교황(1958~1963년 재위)는 명칭을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바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교황 레오 13세(1878~1903년 재위)는 1883년 9월 1일에 발표한 회칙 「최고 사도직」을 통해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당시 유럽 전역과 전 세계는 사상적 오류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분야의 변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교황은 과거 묵주 기도를 통해 혼란과 위기를 극복했던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12세기 말 마니교의 소산인 알비파 이단이 확산하였을 때, 16세기 이슬람 세력이 공격해 왔을 때 그리고 18세기 또다시 튀르키예 군대가 헝가리의 테메스바(Temesvar)와 코르푸(Corfu)를 침공하였을 때, 묵주 기도로 이겨낸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위기와 묵주 기도의 연관성을 상기한 교황은 10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정하고, 한 달간 성모님께 의탁하며 진리와 사랑의 구원 신비를 담은 묵주를 손에 들고 험난한 시대에 평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안녕, 세계 평화와 생태계의 질서가 위협받는 오늘날, 묵주 기도는 이기심과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선과 상생을 도모하는 일에 소중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10월을 맞아 이번 한 달간 묵주 기도를 꾸준히 바쳐보도록 합시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통소승천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4일 프란치스코: 최내영, 류진형, 유찬형, 유시형
5일 파우스티나: 고여정
9일 아나다시아: 강계순

전 례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미사 시간: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예비신자 모집
교리 시작: 10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12월 주님 성탄 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을 예비 신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군인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0월 5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10월 12일	주송자	오정화 아녜스
	권우석 라파엘, 정윤정 라파엘라	

우리들의 정성 (9/22 – 9/28)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8건 ····· 800,000원
주 일 헌 금 ····· 9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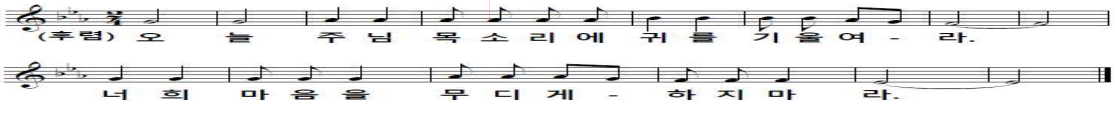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 지 / 단 체

◉ 10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10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회합 시간: 주일 오전 9시 미사 후
본당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 또는 단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단장: 이은혁 마태오 010-2284-6759

- 금주의 복음 말씀 -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화답송